

장흥군, 새정부 공약 연계 ‘미래 비전사업 발굴’ 박차

총 64건·1조3천704억 규모 사업 논의
그린바이오·AI·스마트 농업 육성 등 제안
김성 군수 “군민 삶의 질 향상·지역 발전”

장흥군이 이재명 정부 공약과 연계한 지역 장기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3-4일 김성 장흥군수 주재로 ‘새정부 국정반영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장흥군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총 64건, 1조3천704억원 규모의 전략사업이 논의됐으며, 이 가운데 1조387억원이 국비건의 대상 사업으로 제안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 연계사업 48건과 지역 현안 및 대통령의 장흥군 공약사업 16건을 포함해 정부정책과 발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구축하려는 장흥군의 의지를 내비쳤다.



장흥군이 지난 3-4일 군청 회의실에서 ‘새정부 국정반영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됐으며 새정부 주력산업인 바이오·AI 분야로는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수산 양식산업 AI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 등이 제시됐다.
농·수·축·임업 분야로는 ▲국립 유기농업진

흥센터 건립 ▲고소득 농산물 무병묘 공급지원 센터 건립 ▲가족분노 고체바이오연료 설비 구축사업, 문화·관광 분야로는 ▲국립 노벨 문학

관 건립 ▲문학관광기행특구 특화 발전 ▲보림사 일원 생태정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흥군은 군민 7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 요소를 접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사업의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혈을 기울여 왔던 국책사업,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이번에 보고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국고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 노인 무료식사 배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군의 중점 추진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시, 국정과제 선점 ‘총력 대응’

9개 부서 총 23건 건의 사업 보고
세무서 설치·경전선 KTX 정차 등

광양시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창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건의사업 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16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으로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양시의 핵심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정완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및 관련 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9개 부서에서 총 23건의 건의 사업을 보고하고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사진>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벤처기업 성장엔진 스케일업실증센터 구축 ▲수소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철강·탄소중립 인



공지능전환(AX) 지원센터 구축 ▲광양만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 관련 사업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세무서 설치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 등 그간 광양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온 핵심 현안들도 포함됐다.
광양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별 건의 사업을 정비·보완한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정부 공약과 연계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 내년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행

오는 9-12월 시범운영

여수시는 7일 “2026년 1월1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어르신 무료 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등으로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현금 사용률이 59%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금 승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운행 지연을 예방하고 운수업체의 현금요금함 유지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26년만에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체

계를 적용함에 따라 카드단말기에 축적된 버스 이용 정보로 노선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은 섬 지역을 포함한 72개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해 총 194대에 달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에 부착된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6천원~6천500원, 카드비용 포함)를 승무원으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여수시는 현금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달까지 버스 194대와 정류소 880곳에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간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 버스정보안내기(BIT),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씩 총 2차례 걸쳐 시범운영에 나서며,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반영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와 운수종사자 승객 응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 ‘우량 씨마늘 보급 사업’ 착착



주아 재배...11.4% 자체 생산 대체량
고흥군이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3년째 추진하며, 지역 마늘 산업의

자립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 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주도로 남도마늘을 주아마늘 꽃대 끝에서 자라는

번식용 작은 씨앗으로 재배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관내 113 농가에 22t의 씨마늘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12t의 씨마늘이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흥군 전체 남도마늘 재배면적(464ha) 중 약 11.4%를 자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사진>
지난해 씨마늘을 공급받은 농가는 “마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퇴화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량 씨마늘은 주아에서 생산돼 종구 갱신 효과가 있고, 일반 마늘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며 “우량종자를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7월부터 녹동농협을 통해 남도마늘 우량 종구를 일반마늘 수매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주아 재배가 힘든 대서마늘도 조직배양을 통해 우량 종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화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추가 모집

18일까지 신청

화순군은 7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5등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지원 신청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를 보유한 경우이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

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1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 이 지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의회가 최근 인사를 단행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극덕 의회사무과장, 정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서인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귀정 자치행정전문위원.

〈담양군의회 제공〉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장에 첫 의회직 사무관 임명

인사권한 이후 첫 사례

담양군의회는 “최근 자체 인사를 단행, 의회사무과장에 처음으로 의회직 사무관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22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 후 첫 사례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임명된 김극덕 사무관은 2022년 8월 의회사무과로 과장급 의정팀장을 역임한 후 의회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자치행정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을 거치며 의정활동 지

원, 조직운영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또한 산업건설전문위원에는 서인자 사무관, 자치행정전문위원에는 김귀정 사무관을 각각 임명했다. 팀장급 인사로는 정상범 의사팀장, 이현우 입법지원팀장, 김수진 홍보팀장이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정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은 “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장 시절부터 의회 조직 안정과 직원 처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있는 인재 양성과 함께 공직자 사기 진작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신규 사업·기관 협업 등 주요

장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종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장성군은 서울 ‘에스씨(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대회에서 ▲모바일 건강검진기 ▲메타키즈 어린이 비만교육 ▲금연 토크콘서트 ▲통합건강증진형 차세대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추진과 지역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성과대회 전략부문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전남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누구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